

대리기사 세상통신

대리일화



wedrivers.net

T. 1666-5634

(사)전국TV
대리기사협회

대리일화:: 대리기사의 세상통신(1)을 알립니다.

1. 외로움 술, 그리고 대리기사
 2. 이런 곳 길고양이 먹이통, 누구십니까
 3. 신당동 대리기사 습격사건
 4. 집쟁이가 좋아여
 5. 절은 태양
-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그간 언론이나 몇몇 매체에 소개된 대리일화를 추려서
2-3회에 나눠 특집판을 꾸려봅니다.

때로는 무더위와 모기떼에 시달리며,
때로는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보람 속에
혹은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소 겪고 느끼는 대리기사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밤낮이 바뀌고 고립된 업무환경에 시달리지만
그래서 더욱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본능!! 이렇게 아웁니다.

대리기사의 세상통신, 그 감성버전~ ♪
그래서 이렇게 대리 일화~~ 입니다.

(사)전국
대리기사협회

1. 외로움 숲, 그리고 대리기사

2016.12

김 종용

7월 26일, 새벽입니다. 언덕배기 아파트단지를 터덜터덜 걸어내려오면서 하늘을 봅니다.

장맛철이라지만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얼마만인가요. 이 대리일을 하면서 하늘을 편히 쳐다볼 수 있었던 게....

"...기사님, 제일 힘든게 뭘지 아세요?.....외롭다는거...옆에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거..."

"...손님, 제일 힘든게 뭘지 아세요? 이렇게 고단하게 밤길 달려도 처자식 먹여살릴 수 없다는거..."

좀전 나눴던 대화를 되새기며 그렇게 하늘 한번 더 봅니다.

▲ 용인에서 강남까지 대리비가 5만원? 수지 신봉동사거리에서 대책없이 셔틀을 기다리다가 잡은 오더입니다. 예고 강남까지 5만원이라고? ㅋㅋ

출발 지도		갱신		닫기	
발주처	T... ..				
상황실	164				
특이사항					
고객명					
고객전화	05075466798				
출발지	신봉동				
도착지	강남				
요금	50,000 원				
요금구분	현금				
오더정보					
접수시간	00시46분				



강남이 5만원?

'수지 신봉동 000 아파트 - 강남 50k',

으잉?

순간 내 눈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더 빨랐나봅니다.

신봉동 사거리, 버스는 끊겼고. 천상 대책 없이 육교 밑에서 셔틀 오기만 기다리다 잡은 오더입니다. (*셔틀- 새벽에 대리기사들을 유료로 이동시켜주는 사설버스를 말합니다.)

심봤다~~

손에게 전화 합니다. "...뚜뚜뚜~...."

한참을 전화 받지 않습니다. 아고 이거 낱이구나...아쉬운 맘에 몇
번 더 돌려본 전화,

".....아..저..씨~,#@%%*&.....

.....

아저..씨, 오실 때...죄송..하지..만...

...&^*# ...소주 한병과...오징..어...담배..하나만...사다 주실래..여~

...저..나쁜 사람...아니에..여...."

술에 푹푹 절은 목소리입니다. 마치 애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입니다 ^^

음...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점검합니다. 카메라, 녹음기....언제라도
바로 녹음하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점검해봅니다. (*대리기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기와 카메
라 어플은 필수입니다. ^^)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 담배를 사들고...
아파트 언덕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왜 꼭 대리콜
은 아파트 꼭대기 아니면, 그 너머 뒷편인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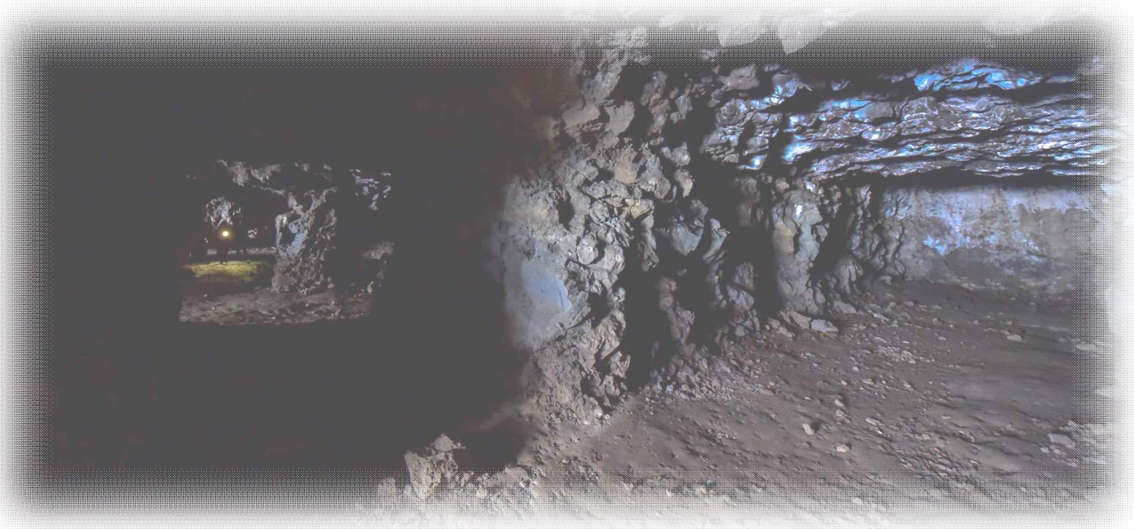


만두속이 될지라도, 대리기사는 간다~

아파트 %%동, 다시 확인 전화하고 올라갑니다. 헉!!

소도독놈 같은 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재빨리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돌려댁니다.

맛탱이 간 손, 나를 붙잡고 빨리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보칩니다. 망설여 집니다.



저 컴컴해보이는 남의 집 들어가서 무엇이 될꼬..으음.
설령 내 살이 이집에 와서 만두속이 될 지라도.
대리기사가 가야하는 길이라면... 들어갑니다~
넓은 아파트 집안입니다. 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 소주병과, 외로움, 그리고 대리기사: 수십병의 소주병, 널려있는 안주포가리, 그사이에 구겨져 술취한 손, 거기에 대리기사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20여일을 이려고 있었다 합니다. 오직 소주와 비루한 안주, 담배를 물어댄 채.

자세히 들여다보니 험한 얼굴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기 보단, 순하고 지친, 가엾기까지 한 얼굴 모습입니다. 이미 두명의 대리기사가 이렇게 술 사들고 와서 손의 푸념을 들어주곤, 몇만원 받고 간거 같습니다.

이제 오늘밤에는 내가 마지막 방문 대리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51, 아직껏 미혼, 노부모님들은 생존하시는거 같고.
그동안 해본 일이라곤 사기 당하고, 택시기사하고, 알바해보고.

돈 없는 사람은 아닌거 같고.

마음은 여리고 착한데, 스스로 무기력과 자책에 빠진 사람.

한시간반동안 앉아 나눈 대화 중 파악해본 사항입니다.

"...뭐라도 해야겠기에,...택시기사도 하고 알바도 해보고

...여럿 해봤어요.

그런데...정말 하지 못할거 같은게...바로 대리기사였어요.

...대리기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 밤을..."

우리 대리기사,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단돈 1-2만원 벌기위해서 언덕배기를 오르내리고 골목길을 배회하며, 강남 대로길도 무단횡단해 버립니다.

비오는 밤, 숲속길을 외롭게 걸어가도 겁이 날 틈이 없습니다.

설령 만두속이 될지라도,

손님이 오라는 곳은 목숨 걸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가엾은 유한계층의 술심부름과 푸념을 다 받아넘길 줄 알고, 인간적 위로까지 해줍니다.



돈 7만원 주머니에 넣고, '흐뭇한' 마음으로 언덕길을 내려옵니다.

이런 근사한 아파트 하나 없고, 벤츠 자동차도 없지만 뭔가, 내가 더 부자인거 같은 밤입니다.

그렇게라도 우기고 싶은 밤...

*출처: 김종용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drmanzok/2>

2. 이런 곳 길고양이 먹이통, 누구십니까

마주친 들고양이, 내 맘을 울리다

김종용

2017.4.9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후다닥', 무언가 튀어나가더니 조용합니다. 아... 자그맣고 귀여운 들고양이가 불안한 눈동자 놀리며 덩불 속에 숨어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아니, 이 덩불 속에 이렇게 조그만 고양이가 놓여있다니.'

안양 인덕원 뒤 청계지역입니다. 강남에서 오전 막콜을 타고 마친 대리운행길에 우연히 녀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머리맡 덩불 속에서 어린 고양이가 도망 가다 말고 멈칫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그 귀엽고 가엾은 모습도 놀랐지만, 이 녀석이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게 의아했습니다.



아, 어느 분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군가 먹이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제 오늘 놓인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어느님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리도 아름다운 마음을 베푸는 걸까요.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자신의 정성으로 가엾은 동물을 살린다는 이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던 어린 길고양이가 눈치없는 대리기사 덕에 식사를 망쳤습니다. 아고, 한없이 미안합니다.

급히 빠져나오다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살며시 되돌아가 장면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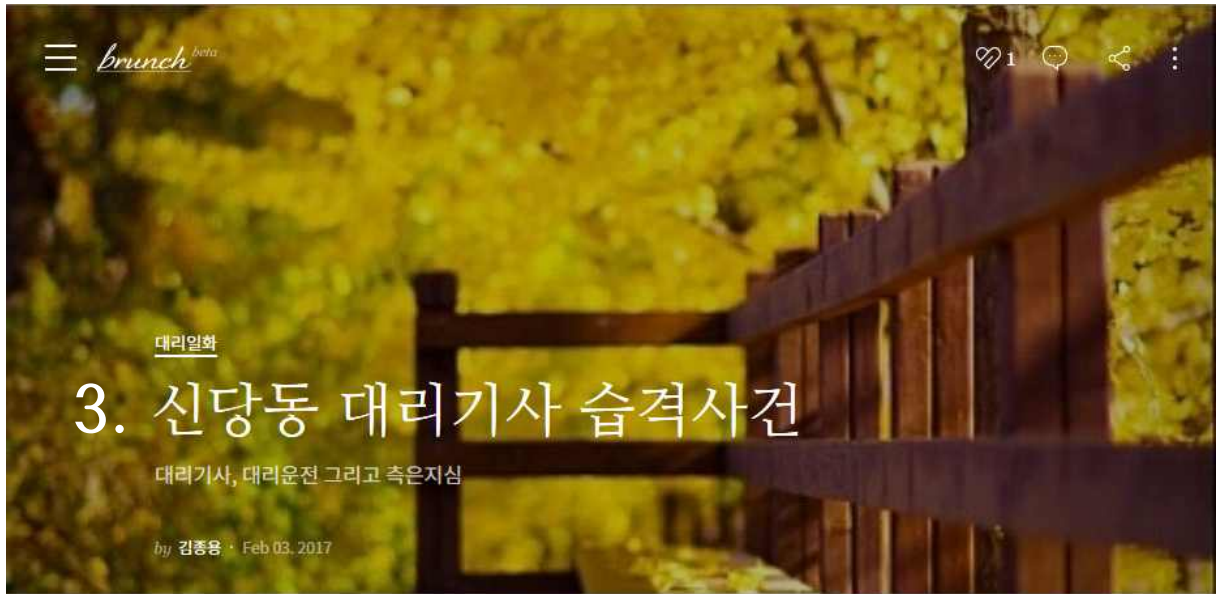
어느 님인가의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있으리라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밤새 잠 못 자 가물가물한 늙은 대리기사, 정신이 맑아지고 기쁜 마음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921



대리기사, 대리운전 그리고 측은지심

-김 정철

2017. 3. 1

역시 가을이다.

나이 60이 다되가는 내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돌려놓는 밤인 걸 보면...

늦가을의 신당동 골목, 허덕허덕 대리운행 마치고 걸어가는 새벽길에 이런 기억이 밝히다니...

11월의 어느 쌀쌀한 날, 신당동 L아파트에서 부천가는 25,000짜리 오더를 잡았다. 청구역에서 부지런히 올라가도 족히 10분이 넘는 거리, 복잡하고 미로같은 지하2층 주차장을 찾아가 겨우 만났다.

배웅하는 손님이 "잘 부탁한다" 며 30,000 원을 손에 쥐어줬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한 운행길,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부부와 6세가량의 어린 사내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었다. 청구역쪽 대로변으로 나오기 직전 갑자기 남자 손님이 차를 세우란다.

"대리운전 취소하니, 요금으로 받은 돈 30,000 원을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당황하여 몇마디 다툼이 오갔다. 옆에 있는 부인도 한마디 거든다.

"좋게 말할때 내놓고 가세요"

20분 정도 걷고 찾아가고 시간 낭비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대리운전 요금으로 받은 돈을 무조건 내놓으라" 하였다.

돈을 빼앗으려는 손의 목적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망설였다. 욕심의 도를 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낡은 아반떼를 끌고다니는 손이라...

하지만 아무리 살림이 구차하고 어려워도 이런 행위는 상식밖이다. 옥
신각신 다투던 중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꼬마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힐끔 쳐다보던 해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더이상 싸울 마음이 사
라져 버렸다.

미음이 변하여 가련하고 불쌍하기까지 여겨졌다.

운행을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나를 돌아 보았다. 내 모습은 그 아이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눈망울 또랑또랑한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오늘 다시 떠오른다. 잘 자라
나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 보는데 똑바로 사시요!" 하며 돌아섰던 그때 내 말이 내 마
음을 찌르는 밤이다.

(본 글은 김정철회원님이 보내주신 일화를 편집해 올린 겁니다.)

* 김종용의 브런치 <https://brunch.co.kr/@drmanzok/78>



끊어지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4. 겁쟁이가 좋아여

김 종용

2012. 7. 6

9.23, 새벽 2시 넘어, 양천 향교역입니다.

로지에서 자동배차가 올라옵니다. <양천향교역 -신월3동>

구석에 갇혀서 답답했건만 마침, 코앞 출발지라 반가운 맘에 콜 하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손, 얇전히 갑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 손, 담배를 꺼내
더니 권합니다.

아...담배이야기라면 또 내가 전공입니다. ㅋㅋ

제가 금연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치루수술을 한 후 폐암이 겁나서 금연을 하게 된 사연...

**"... 손님이 지금 들고 계신 기다란 담배가
나중 손님 가슴살 뚫고 폐 깊숙히 찢러대는
주사바늘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손님, 진지하게 들어가며 차마 담배불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꿎은ライター만 톱툰 거리며 내 이야기를 경청 합니다.

탄력이 붙은 이 담배특강은 침 튕겨가며 이어집니다.

**"...내 턱밑의 연약한 가슴살 찢고 파고드는 메스칼에 피가 솟구치고,
잘 잘리지 않는 내 갈비뼈를 끊기 위해 쇠자르는 커터칼로
두둑~ 갈비뼈를 끊어냅니다...." ㅋㅋ**

이건 차라리 공포 특급입니다. 금연특강을 빙자한 테러입니다. 그래두 양전한 손은 연신ライター 불을 튕겨가며 경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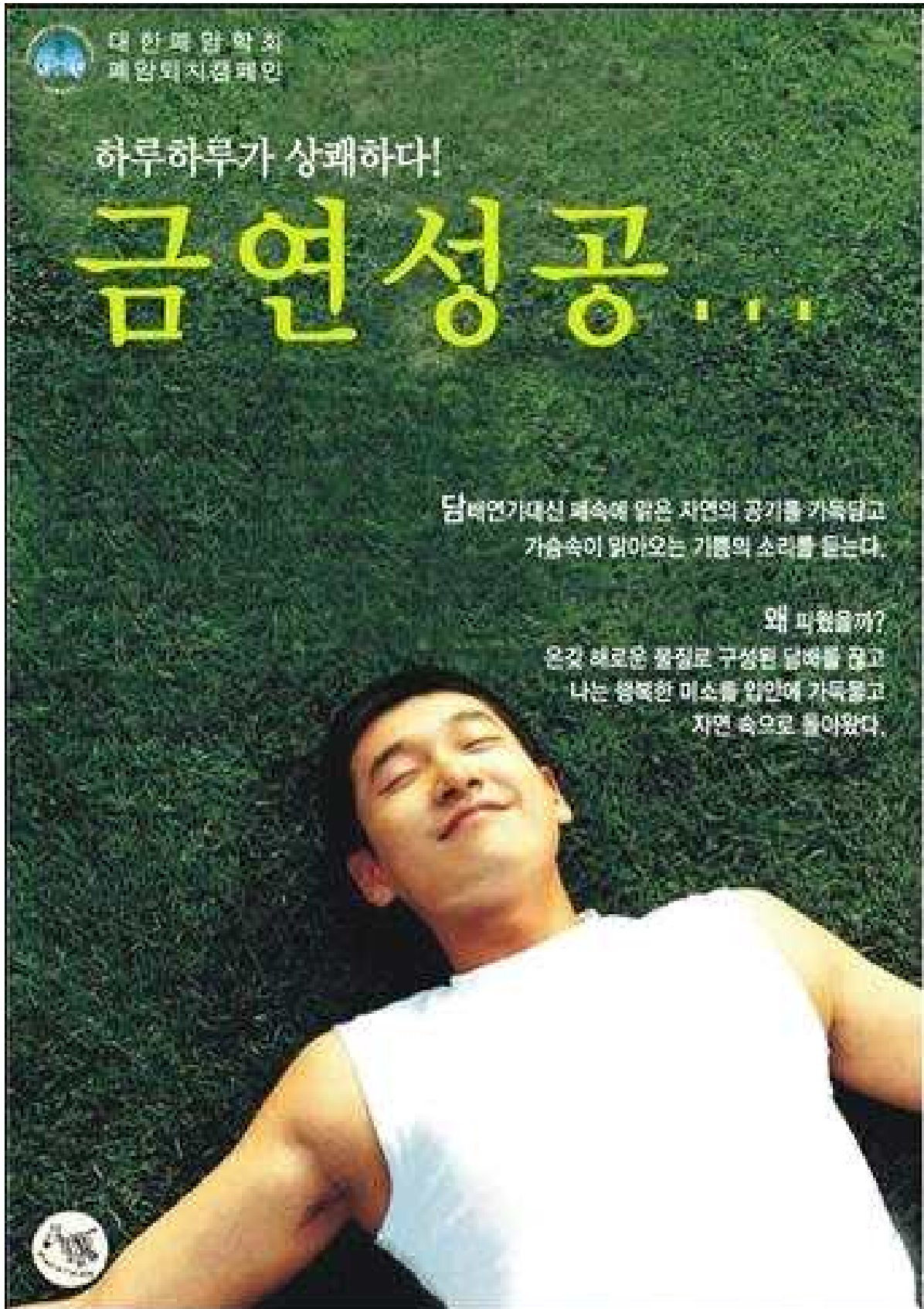
결국 이 손, 끝까지 담배불을 붙이지 못하고(않고) 내 이야기 맞장구 치며 목적지까지 도달 합니다.

고맙다며 특강비라 팁까지 줍니다.

예의상 담배를 안 핀거건, 잠시라도 마음을 비운거건, 나와 헤어지고 나서 줄담배를 피건, 이 손, 언젠가 나와의 짧은 대화가 금연을 하는데 한

동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담배, 정말 끊어야 합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폐암학회
폐암퇴치캠페인

하루하루가 상쾌하다!

금연성공...

담배연기대신 폐속에 맑은 자연의 공기를 가득담고
가슴속이 맑아오는 기쁨의 소리를 듣는다.

왜 마셨을까?
온갖 해로운 물질로 구성된 담배를 끊고
나는 행복한 미소를 입안에 가득물고
자연 속으로 돌아왔다.



겉장이가 행복해여. -금연이 주는 경이로움

1. 십여년간 앓아오던 요통이 1주일만에 없어졌습니다.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골골하며 십여년간 고생했지요. 단학수련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결국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아...담배를 끊은지 1주일 동안, 정말 거짓말처럼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린게 다 나아버렸습니다. 마치 진통제를 맞으면 서서히 통증이 가시듯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서서히 내 몸안의 통증이라는 악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더군요. 그때의 그 황홀함이란.....

2. 가래와 기침, 감기가 사라졌습니다. 죽을 정도의 공포를 주는 심장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가을철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독감에 걸려 며칠동안 앓곤 했었지요. 가래는 일년 내내 달고 다녔고.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흡연자들, 갑자기 꿈쩍도 못할 정도로 가슴이 콕! 막혀 죽을거 같은 통증과 공포 느끼실 겁니다. 물론, 없어집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금연이 신조가 되어야 합니다.

3. 피부가 좋아지고 목소리가 살아납니다.

항시 누런, 창백한 얼굴색을 띤 내 모습이 한결 밝은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20대 꽃다운 청춘은 물론 아니지만, 내 나이 어떤 동기생들보다 얼굴 피부가 나쁘지 않다 자부해여. ㅋㅋ 노래방에서 노래 몇곡 하면

목이 쉬곤 하던 것이 없어졌구요. 하룻밤새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4. 운동을 해도 헉헉 거리지 않고 덜 지칩니다.

최고입니다.항시 피곤하고 지쳐지내던 몸이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말로 더 설명, 필요 없겠져? ^^

5. 정력이 좋아집니다. 키스에 자신이 생깁니다.

음...남자 몸에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네 ~~~

: 맞습니다. 유행하는 광고 문구 처럼 금연은 정말 남자 몸에 좋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 하지 못할 정도로....차마, 거시기가 커지고 단단해진다고 어찌 말로 표현 할 수가 있겠어여 ㅋㅋ 여자를 품어도 절대 실수란 없습니다.

6.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입맛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상큼하게 일어나 집니다.

등등,,,무지 많습니다. 금연이 내게 안겨주는 경이로움, 누구나 다 알 이야기들이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 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 담배값 모아 매달 아내의 선물을 사거나 보험을 하나 들어주면?

마누라 에게 사랑 받고 가정 화목하고, 거기다 그 좋아진 정력까지 베풀어주니...금상첨화 겠죠? ㅋㅋ 하지만 이 사항은 아직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군요.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금연의 경이로움, 여러분 몸소 겪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겁장이가 되어 보세요. 흡연이 주는 고통을 자꾸자꾸 겁내세요. ^^ 담배, 끊어집니다.



*출처: (사)전국대리기사협회 ▶

<https://cafe.daum.net/weddrivers/6u3o/60?svc=cafeapi>

5. [대리일화] 젊은 태양

새벽, 대리기사의 쓰린 가슴 달래지려나...

by 김종용 · Nov.16.2017

김 종용

아침이군요. 새벽이라고 하긴 너무 늦은...6시 다 되었으니...

운행을 마치고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 궁금한 김에 피씨방에 들러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대리기사 카페에 들어가니 어느분인가 올려놓은 노래, 눈이 확 깨는 섹시녀 사진을 보며 듣습니다. 문득, 가을 내 가슴의 횡한 느낌이 파고 듭니다. 섹시녀의 젓가슴을 보고 횡한 마음이 들다니 원 취향이라곤 ~

요 며칠 사이를 생각해 봅니다. 이 카페에만 해도 참으로 여러 사람들의 주장과 반박과 하소연, 이러저러 이야기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돌이켜보면 다들 힘든 시절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분도 있을거고, 잠시만 일 알아보는 중에 거쳐가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참으로 여러 분들이 섞여서 꾸러져가고 있는 이 대리판, 하지만 저녁이면 다시 피딩이 들고 길거리에서 혹은 다른 한 구석에서 뚫어져라 화면 들여다보며 초조히 오더를 기다리기는 마찬가지로일거입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모기에 시달리며,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세상의 눈초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들 이 쓰린 마음을....

잠시라도,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마음만이라도 풀고 어울리고 싶은 날입니다.

이런 노래....올려봅니다.

젊은태양 / 심수봉

햇빛 쬐는 거리에 선 그대 그대
고독을 느껴 보았나 그대 그대
우리는 너 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햇빛 쬐는 하늘보며 웃자 웃자
외로움 떨쳐 버리고 웃자 웃자
우리는 너 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종소리 바람소리 고이고이 잠들던 날
먼하늘에 저 태양이 웃는다
햇빛 쬐는 거리에 선 그대 그대

*출처: 김종용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drmanzok/160>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권익운동과 함께 탄생 성장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고율의 수수료와 각종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의 부당한 풍토에 맞서 헌신적 활동을 펼쳐가던 대리기사들은 그 성과를 모아 2013년 전국대리기사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당국으로부터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를 동시에 받아냈습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활동 및 각종 정무사업,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대리운전뉴스 발간 등, 각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가며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과 해법을 추구해왔습니다.

또한 법정투쟁을 통해 업자들의 부당한 방해를 막아내고 렌터카 대리보험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드디어 이동노동자쉼터사업을 성사시키고 대리기사마스크 배포확대, 고용안정지원정책 추진 등, 대리기사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유례없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또한 유튜브등 각종 온라인사업을 활발히 펼쳐가며 조직확대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오비맥주와 다트협회 등 사업체들과 매년 음주운전방지캠페인을 벌여나가며 대리운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활동은 물론, 대리기사의 권익과 업무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법적사각지대와 불합리한 풍토에 놓여있는 현실은 소비자와 대리업체, 그리고 대리기사 간 끊임없는 시장의 분규를 낳고 있고 업계 종사자 모두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묵묵히 꾸준히 실천해가며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는 고대합니다.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유튜브: 전국대리기사협회TV, 바로티비baroTV
- 사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비공개): <http://cafe.naver.com/wedrivers>
- 밴드: band.us/@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1) 권익향상 사업
- 2) 교육 및 정보교류를 통한 자질향상 사업
- 3) 상호부조와 후생복지 및 친목 사업
- 4) 대리기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사업
- 5) 대리운전신문과 유튜브 등 언론 사업
- 6) 협회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사)전국 TV
대리기사협회